

인류 최초로 단 두개의 핵폭탄이 실전에 사용된 전말기 (하)

나가사끼 포로토늄폭탄 투하전날

전호에서 히로시마에 대한 원자폭탄 1호의 투하 경위를 자세하게 알아 보았다. 8월 6일에 히로시마 공격이 있은 후 사흘이 지난 8월 9일 이면에는 나가사끼에 원자폭탄이 투하 되었다

원래 8월 11일에 참전하기로 했던 당시의 소련군이 8월 9일 나가사끼에 원폭이 투하되던 날 일본군을 전면 공격하여 참전했다. 이것은 히로시마의 원폭 투하로 전쟁이 빨리 끝날까봐 서둘러 참전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그러면 나가사끼의 핵공격 경과를 살펴보자.

나가사끼 공격

내려진 작전명령

미국당국은 그동안 히로시마, 나가사끼의 양도시에 대한 원자폭탄 투하 작전 기록을 작성당시부터 최고 기밀문서로 지정하여 철저히 은닉 보관 하다가 30년이 지나서 해금 하였다.

해금된 보고서는 제20공군 대일 폭격작전보고서 12권중 특별 폭격작전 보고라고해서 제3권에 수록되어 있었다.

이제 이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뒤쫓아 본다.

제 2차 원자폭탄투하 공격의 작전명령은 1945년 8월 8일 07:00에 작전명령 제17호로 제509 비행단에 하명 되었다.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 ◇ 주 목 표 : 고구라(小倉)조병창 및 시가지
- ◇ 2차 목표 : 나가사끼(長崎)시 도시부

- ◇ 부대편성 : 폭격기 3기, 예비기 1기, 기상관측 정찰기 2기 (예비기는 유허도에 대기하며 기상관측기는 목표별로 1기씩 30분 전에 발진)

- ◇ 비행경로 : 주목표 - 屋久島에서 姫島를 경유 목표지점으로
2차목표 = 屋久島에서 日向 를 경유 접근

- ◇ 이 탈 : 적어도 150도 반전하여 日南해안으로 신속히 이탈

- ◇ 폭격고도 : 28,000~30,000 피트 상공

- ◇ 폭격속도 : 200마일/ CIAS

- ◇ 폭격조건 : 육안시각확인에 한함. 일기 관측기로부터의 통보에 따라 2차목표로 변경할 수 있음

- ◇ 주 의 : 타 폭격기의 접근금지 - 특수폭탄 투하 시간 전후 각4시간 이내에 50마일(80km)이내의 공역에 대한 타 항공기의 비행을 금지함. 제3 사진 정찰중대의 사



〈해금된 제20 공군보고서 표지〉

진 촬영임무기도 폭발후 4시간은 목표 상공을 비행해서는 안된다.

◇각 출격기의 임무및 분담업무

•원폭투하기 : 식별번호 제77호 기. 애칭 복스카. 프로토늄239폭탄 피아트멘을 투하

지휘관 : 기장 찰스W. 스위니 소령

원폭담당 지휘 : 프레데릭L. 이슈워드해군 중령

폭격수 : 카미트, K.비이한 대위

•라디오 존데 투하기 : 제89호 기. 낙하산이 달린 무전발신기 3대를 투하하고 관전 지원

•고속도사진촬영기 : 폭발하는 모양을 고속도로촬영. 관전지원. 원자물리학자 윌리엄페니박사(영국인) 동승.

•기상관측기 : 2기가 30분 선행하여 양지역의 일기상태를 통보

새벽의 출격

이와 같은 작전명령에 따라 출격자 일동은 테니안 기지에서 항공사신과 지도에 의한 최종 브리핑을 듣고 중군목사의 기도가 있던 뒤 3시간의 가면을 취한 후 비행기의 상태를 점검했다. 이것은 비행직전 탑승자가 자기가 탈 비행기를 직접 점검하여 안전을 확인하는 것이다.

원폭 투하를 위해 개조된 B-29 중폭격기는 폭탄창고 안에 보조연료 탱크를 싣고 있었다. 장시간 비행에 건디기 위한것인데 연료계통을 점검한 항공기관사 크레아크 상사는 박스카에서 휘발유 냄새가 나는 것을 감지했다. 그래서 휘발유펌프를 작동해 보니 보조탱크가 새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항공기

의 정비중에 연료탱크 수리는 아주 힘든 일이다.

싣고 있는 휘발유를 모두 뽑아 내고 탱크를 수리해야 하는데 그러자면 실려있는 원자폭탄 피아트멘도 내려야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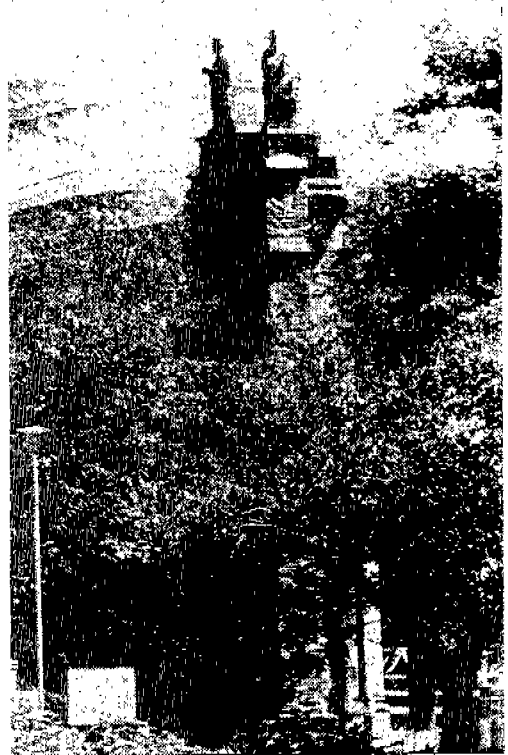
그 작업이 또 보통이 아니다. 그러지 않아도 폭탄 자체가 무거워(약4.5톤) 들어올려 매달수가 없어 B-29 항공기가 폭탄 위에 올라타는 꼴로 하여 닭이 알을 품듯이 비행기 하부에 매어 달아 놓은 폭탄을 떼어 내고 다시 달아 매는 일이 보통이 아니다.

그러자면 첫째 시간이 없다. 사령부에 이 사실이 보고되었다.

사령부는 약간 기름이 새더라도 그냥 출격하라고 명령했다. 그결과 휘발유 누출부위에 응급조치로 막고 펌프의 회로를 잘라버려 더 이상의 누출을 막는 한편 보조탱크에 있는 3,000의 휘발유는 뽑지 않고 그냥 싣고 떠나게 했다. 이 기름은 약 2시간 비행분이기 때문에 테니안까지 무사히 귀환하지 못한다면 오키나와에 내려 수리하도록 긴급 조치를 취했다.

이런 저런 일 때문에 출격 시간이 늦어져 기상관측기가 먼저 02:03에 이륙하여 하나는 고꾸라로 하나는 나가사키로 향했다.

고꾸라를 공격하는 거리는 히로



〈원폭투하 폭심지 · 우라가미지구 기념동상이 있고 꽃이 만발하다〉

시마보다 약 240km, 시간으로 40분이 멀다. 그래서 작전계획은 원폭 투하시간을 히로시마 보다 30분 늦추어 08:45으로 잡고 테니안 기지 출발을 01:30으로 잡았으나 문제가 생긴 탓에 복스카는 휘발유가 새는 채로 그냥 02:49 에 정시간보다 1시간19분이나 늦게 이륙했고 이어 2~3번기가 뒤따랐다.

고꾸라 공격의 시간이 맞지 않는것은 이미 출발부터 명백했다. 또 한가지 미스가 있었다.

3번기인 사진 촬영기에 타야할 사진기사가 타지 못하고 말았다. 그는 휘발유가 새는 복스카를 보고 출격중지가 될것으로 알고 낙

하산을 반납하려 간 사이에 급히 비행기가 이륙해 버린 것이며, 3번기의 가장 흡킨스소령은 한참만에야 그 사실을 알았지만 돌이킬 수 없어 그냥 따라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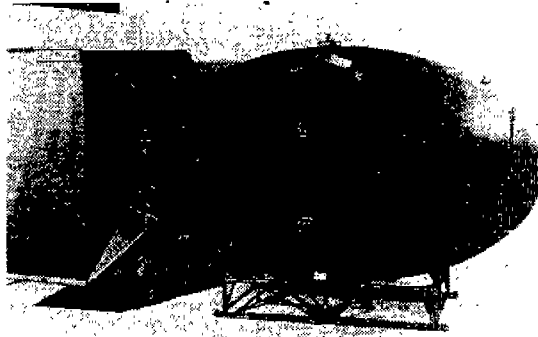
폭격대의 3기는 각각 屋久島 상공까지 와서 다시 편대를 짜도록 되어 있었는데 복스카와 2번기는 제시간에 정한 지점에 도착했으나 3번기가 15분이나 공중을 선회하면서 기다려도 오지않았다. 3번기의 가장 흡킨스소령은 항법 착오를 모르는채 집합지점에서 64km나 떨어진 작은 섬 상공을 그냥 빙빙돌면서 동로기가 나타나기를 기다렸다. 이때 1~2번기는 屋久島상공에서 무려 46분간을 허비하다가 단념하고 2기만으로 고꾸라 상공을 향해 침입했다.

이때 일본군측은 서부군관구에서 07:48 경계경보발령후 07:50 공습경보를 발령 했으나 고꾸라와 나가사끼에서 B-29 각 1기가 고고도에서 서쪽으로 빠져 나갔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것은 기상관측기로 먼저 출발한 2기였다.

08:15 기상관측기는 고꾸라와 나가사끼의 양쪽이 모두 “목표 시계 양호”라고 타전한 뒤 돌아 갔다. 일본군측은 08:30경보를 해제했다.

뒤바뀐 비극의 도시

폭격대는 09:55 작전명령대로 姫島 상공을 통과하여 고꾸라 침입로에 들어섰다. 그러니까 약5분 뒤에 폭격이 가능했으나 고꾸라 시가지 상공에 도달해보니 상황은 달랐다. 이미 한시간전에 기상관측기가 본 날씨는 변해 있었다.



〈나가사끼에 투하된 피아트멘의 모양〉

공습으로 생긴 연기가 구름에 섞여 고꾸라 시가지를 뒤덮고 있어 조병창을 찾기가 쉽지 않았다. 고꾸라 조병창은 22만평의 부지에 세워진 거대한 공장군으로 연기나 구름이 일부 끼여도 유효반경이 2,300m나 되는 프로토늄폭탄이 빗나갈 염려는 없었기 때문에 레이더에 의한 조준 폭격도 불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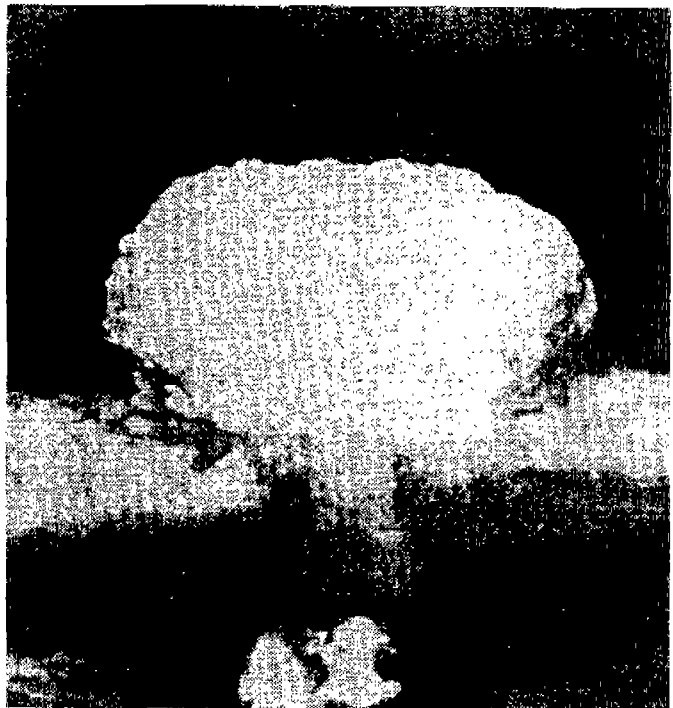
하지 않았다.

그러나 작전명령은 어디까지나 육안으로 조준하여 시각 폭격을 하도록 강력하게 지시되어 있었기 때문에 폭격수는 이 원칙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폭격대는 고꾸라 시 상공을 세바퀴나 돌았지만 조병창을

찾지 못했다.

일본군도 10:05에 공습경보를 발령하고 인근 비행장에서 전투기가 날아 오르고 고사포탄이 터져 오르는등 위험이 가중된데다 연료도 나가사끼를 지나 오끼나와 기지까지 간신히 갈 정도 밖에 남지 않은 상태였다.



〈나가사끼의 원자구름〉

여기서 가장인 스위니소령은 고풀라를 단념하고 2차 목표인 나가사끼로 가자고 명령했다.

박스카는 뒤 따르는 그레이트 아티스트기에 신호를 보내고 선회하여 나가사끼로 향했다.

막상 나가사끼에 접근해 보니 두터운 뭉개구름이 덮여 있어 역시 눈으로 보고 폭탄을 던지기에는 부적합 한것 같았다. 여기서 육안 시각조준이라는 작전명령을 깨고 피아트멘을 레이더로 조준하여 투하할 것인가 아니면 폭격을 단념하고 폭탄을 바다에 던져 버릴 것인가 양자 택일의 어려운 선택을 해야할 때가 되었다.

가장인 스위니 소령과 원폭조정 담당자인 이슈워즈 중령의 두사람이 다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을 무렵, 레이더 스크오에 나가사끼 항구 부분이 보이기 시작했다. 여기서 뒤 따르는 2번기에 라디오 존데 투하 신호를 보내야한다.

이때 들던 폭격수가 소리 질렀다.

“저기 시가지가 보입니다 ...” 가장님 저에게 맡겨 주십시오. 틀림 없습니다” 역전의 명폭격수는 일생일대의 재주를 다하기로 마음 먹었다.

“좋아! 자! 간다!”

그러면서 뒤 따르는 2번기에 라디오 존데 투하를 명했다.

가장인 스위니 소령은 크게 병크하면서 우선회를 했고 2분 30초 후에 폭격수는 폭탄투하 스위치를 눌렀다.

이때 박스카의 시계는 10시58분을 가리키고 있었고 고도는 8,000m였다.

뒤 따르던 동행기는 라디오 존

데를 투하했다. 이때가 11:01이었다.

원폭을 투하한 박스카호는 반전 대피하여 오키나와로 향하고 뒤의 그레이트 아티스트호는 반대방향을 돌아 박스카호와 합류하여 함께 오키나와로 향했다.

이때 3번기는 원폭이 폭발할 당시 나가사끼 동쪽 64km 지점을 날고 있다가 폭발음을 듣고 반전하여 오키나와로 향했다. 오키나와의 요미당 기지에서 3기가 모두 만나 3시간 가량 지체하면서 기름을 넣고 정비한뒤 이륙하여 그날 22:39 테니안 기지에 귀환했다. 20시간에 걸친 대 장정이었다. 이렇게 하여 역사적인 제2차 원폭투하는 끝났다.

공포의 프로토늄 폭발

시민이 본 세계의 낙하산

당시 나가사끼에 살았던 한 일

본인의 기록을 보자.

8월 9일 07:50 B-29 1기가 맑게 개인 나가사끼의 상공을 높이 날아 유유히 동에서 서로 지나갔다. 3일전에도 같은 일이 있었고 공습경보가 발령 되었지만 아무도 방공호에 들어가지 않았고 대공포 화도 발사되지 않았다. 미군기는 그냥 지나쳐 갔을 뿐이었다.

이것이 기상관측기인것을 일본인은 알력이 없었다.

조반 후인 10:55 공습경보가 다시 발령되고 동쪽으로부터 B-29의 폭음이 들려 오더니 원뿔개구름사이로 동쪽에 1기, 북쪽에도 1기 도합 2기의 B-29가 나타났다.

두 비행기는 200m이상 떨어진 형태로 편대 비슷하게 날아 나가사끼 시가지 상공에서 1번기는 우측으로 선회하고 2번기는 좌측으로 선회하면서 무엇인가를 던지는 것 같았다. 그런데 1번기는 수직으로 급강하 하다가 자세를 수평으로 고친 뒤 남쪽으로 사라져 갔다.



〈박스카의 꼬리부분 기관총좌에서 찍은 붉은 불덩어리의 모양〉

2기의 거대한 적기가 사라지고 폭음만 들릴 때 순백색의 낙하산이 3개 공중에서 내려 오고 있었다. 무척 아름답게 보였다.

그때 함께 있던 아우가 “뭔가 빛이 난다”고 소리 쳤고 순간 귀창이 터질듯한 굉음이 진동하면서 마치 산이 무너지듯 땅이 흔들리



〈원폭투하를 기념하는 나가사키 평화공원의 평화상〉

고 단번에 낮이 밤이 된 것처럼 어두워졌으며 이때 하늘에 빨간 불덩어리가 번쩍 하더니 하얀 덩어

리가 사방으로 산란했다.

거기까지는 눈으로 볼 수 있었으나 다음은 폭풍이 닥쳐 몸이 날려 버리고 아우는 아직 어리기 때문에 바람에 날려 10m나 떨어진 길가에 내동댕이쳐졌다.

한참 지난 뒤 전신의 여기 저기가 아파왔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집이 무너져 천정 사이로 하늘이 보이고 몸은 기둥과 보갈은 목재에 짓눌려 있었다. 집 밖에 있었는데 바람에 밀려 집안으로 날려 온 것 같고 그 사이 실신했던 것이다.

간신히 기둥을 치우고

기어 나왔다.

온몸이 아픈데 이상하게도 상처는 없었다. 일어서 보니 설 수 있

었고 조심해서 걸어 보니 다친 곳은 없었다. 온몸이 먼지 투성이가 되었다. 동생을 찾아보니 길가에 누어 있는데 얼굴이 피투성이였다. 폭풍에 날린 돌에 맞은 때문이었지만 큰 상처는 아니었다.

우리 형제는 거리에 나가 보았다. 집이 무너져 거리에는 차가 다니지 못하고 사람의 그림자는 거의 없었다.

이렇게 하여 인구 40만의 나가사키는 4분의 3이 파괴되고 시민의 반수 이상이 부상했으며 죽은 사람만 당장에 2만명을 넘었다.

그런데 산이 많은 지형인 나가사키는 햇볕이 비친 곳과 그늘진 곳에 따라 피해가 다르고 또 산이 폭풍을 막아 주어 피해는 히로시마처럼 심하지 않았다.

전후 진주한 미군은 곧 보도환제를 실시하여 원폭피해 보도를 금지했다. 후일 폭심지에 미국의 원폭피해 조사지소가 설치 된 것도 아이러니컬했다.

나가사키는 오늘날 몰라보게 회복되어 있지만 당시의 상처를 잊지는 않고 있다.

정 기 구 독 안 내

본지는 항공우주산업에 대한 기반의 확충과 대중적 이해의 확산을 위하여 정기구독을 원하는 분에게 무료로 널리 보급하고자 합니다.

우편료 정도의 부담으로 6개월 이상 구독을 원하는 분은 Tel. 761-1101~6 기획과 또는 본지 편집실로 연락하십시오.